

2014년 '한국-중앙아시아 공공외교 포럼'

‘Форум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ей 2014’

일시 : 2014년 12월 23일(화) 14:00-18:30

Дата и время: 23 декабря 2014 г. (Вт.), 14:00–18:30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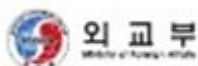
Место: Гостиница «Президент», зал «Шуберт»

주최: 실크로드재단,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Организаторы: Фонд «Шелковый путь», центр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янг

후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외교통상부

Спонсоры: Корейский Фонд,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2014년 ‘한국-중앙아시아 공공외교 포럼’

일시 : 2014년 12월 23일(화) 14:00~18:30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

시 간	내 용
13:30~14:00	참가자 등록 및 입장
14:00~14:20	Opening Ceremony 행사진행 사회자: 정세진 교수
	[개회사] 최재근 실크로드재단 이사장
	[환영사]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축사] 우즈베키스탄 박피요르 이브라기모프 대사 대리
14:20~16:20 (각 15")	Photo Session
	Session 1 : 중앙아시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사회자: 고재남 교수
	[기조연설] 김동기 외교부 문화외교국 국장
	우즈베키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아지즈 마수토프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아태지역 국가 협력국장) 아지즈 이스마일로프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국장)
	키르기스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아자맛 카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전권대표부 연구원) 굴나라 키스카라예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부대사)
	카자흐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아세트 이세날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참사관)
	Panel 윤성학 고려대학교 교수 / 조영관 강원발전연구원 박사 정세진 한양대학교 HK 교수 /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Q&A
16:20~16:40	Coffee Break
16:40~18:20	Session 2 : 한국의 대중앙아 공공외교 사회자: 김동률 교수
	모두 발언 강봉구 한양대학교 교수
	Panel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남인용 부경대학교 교수 박길성 세계한류학회 회장 우준모 선문대학교 교수 이봉현 한겨레 신문 편집국 부국장
	종합토론 및 Q&A
18:20~18:30	폐회식
18:30~20:30	공식 만찬



‘Форум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ей 2014’

13:30~14:00	Регистрация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ведущий: профессор Джон Сэ Джин
	[Вступительное слово] Чой Дже Гын, председатель Фонда «Шелковый путь»
14:00~14:20	[Приветственная речь] Ко Дже Нам, профессор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Академии
	[Поздравительная речь] Бахтиёр Ибрагимов, Временный поверенный в делах Узбекистана в Южной Корее
	Фотосессия
	Сессия 1: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и политика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стран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едущий: профессор Ко Дже Нам
	[Программная речь] Ким Донг Ги,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о вопросам культуры МИ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и политика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Узбекистане Азиз Масутов,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о странами АТР МИД Азиз Исмаилов,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МИД РУ
14:20~16:20 (각 15“)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и политика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Киргизии Азамат Кабаев, эксперт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по югу страны Гульнара Кыскараева,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ы миссии, советник
	Нынешнее положение и политика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Казахстане Асет Исенали, Советник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Панельная дискуссия Юн Сонг Хак,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 Джо Ёнг Гва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Квангвон Джонг Сэ Джин,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янг / Сон Ёнг Хун, профессор Коре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Вопросы и Ответы
16:20~16:40	Кофе-брейк
	Сессия 2: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между Кореей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ей: Модератор: профессор Ким Донг Юль
	Вступительное слово: Канг Вонг Гу,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Ханянг
16:40~18:20	Панельная дискуссия: Канг Гук Джин, журналист газеты «Сеул» Ким Тхэ Хван, профессор Национальн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м Ин Ёнг, профессор Национ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Пукёнг Пак Гиль Сонг,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У Джун Мо,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нмун Ли Вонг Хён, заместитель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газеты «Хангёре»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вопросы и ответы
18:20~18:30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18:30~20:30	Официальный ужин

목 차

[Session I] 중앙아시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1.1 [기조연설] 한중앙아 공공외교포럼 평가 및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

- 김동기, 외교부 문화외교국 국장

1.2 [우즈베키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1.2.1 양국 문화협력강화를 위한 한국-우즈베키스탄 간의 공공외교 활성화

- 아지즈 마수토프,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아태지역 국가 협력국장

1.2.2 공공외교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기본적인 접근법

- 아지즈 이스마일로프,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국장

1.3 [키르기스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1.3.1 공공외교, 국제협력 활동의 현황과 전망

- 아자마트 카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전권대표부 연구원

1.3.2 키르기스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 굴나라 키스카라예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부대사

1.4 [카자흐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1.4.1 키르기스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 아세트 이세날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참사관

[Session II] 한국의 대중앙아 공공외교

2.1 [모두발언]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공공외교 세션의 모두 발제문

- 강봉구, 한양대학교 교수

2.1.1. 발표자 참고자료: 한국의 대중앙아 공공외교

2.2 [Panel] 한-중앙아사아포럼_토론문

-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2.3 [Panel] 중앙아시아에 대한 ‘협력형 공공외교’

-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2.3.1. 발표자 참고자료: 21세기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포럼외교’

2.3.2. 발표자 참고자료: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2.4 [panel] 중앙아시아에서 공공외교와 중앙아시아 미디어콘텐츠 연구의 필요성

- 남인용, 부경대학교 교수

2.5 [panel] “한류, 소프트 파워, 공공외교”

- 박길성, 세계한류학회 회장

2.6 [panel] 한국의 대(對) 중앙아시아 공공외교 증진방안 모색

- 우준모, 선문대학교 교수

2.7 [panel]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디어 공공외교

- 이봉현, 한겨레 신문 편집국 부국장

[Session I]

중앙아시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1.1 [기조연설]

한중양아 공공외교포럼 평가 및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

- 김동기, 외교부 문화외교국 국장

2014 한국-중앙아시아 공공외교포럼 기조연설

12.23(화) 14:00,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

최재근 실�크로드재단 이사장님,
돌라트 바키세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님,
두손쿨 초토노프 주한키르기즈스탄대사님,
박씨요르 이브라기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대리님,
엄구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장님,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님,
내외 귀빈 여러분,

한중앙아 공공외교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중앙아시아 국가 대사님들, 공공외교 전문가분들과 함께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민들 간 우정과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7 년 전 중앙아 담당 지역과장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면서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던 기억이
생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감회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한중앙아 공공외교포럼 평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고대 실�크로드를 통한 장구한
교류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치, 경제, 문화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에너지 자원 협력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등 제분야에서 전략적으로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 년 기준 한-중앙아간 교역액은 37 억불로서 20 년 전에 비해 무려 250 배나 증가하였으며, 중앙아지역에 대한 한국의 누계투자액은 47 억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정무적으로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와 K-Pop 등 한류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내 인하대 분교 설립, 투르크메니스탄의 주한 공관 개설 등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을 연결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서로를 더 깊이 알고 국민 간 교류를 촉진하는 공공외교 분야 협력이 핵심이 됩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같은 알타이 문화권에 속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깊은 친밀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은 양 지역 간 공공외교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외교는 마음을 얻는 외교라고도 하는데, 한국과 중앙아는 서로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중앙아 공공외교포럼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공공외교를 통한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며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의 공공외교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수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안타깝게도 한국은 경제력에 걸맞는 수준의 국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한국전 참화의 잔존 이미지, 남북 분단으로 안보가 불안할 것이라는 부정확한 인식,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 등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한국 외교부가 아주, 미주, 중동 및 아프리카 중견국 17 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이미지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가 아직도 남한과 북한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외교부는 2013 년부터 별도의 공공외교 예산을 편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국 문화의 매력과 한국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외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세계가 신뢰하는 매력한국'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 확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국가 이미지 확산, 우리 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라는 목표하에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한국의 공공외교 정책 방향에 따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외교 활동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은 매력있는 문화적 자산을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불과 반세기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함과 동시에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5 천년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오늘날 한류로 대변되는 K-pop, 한국 드라마, 영화가 탄생하였고, 98 개국에 1 천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약 1,000 개의 한류 동호회가 자발적으로 설립되는 등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행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의 한류동호회를 지원하여 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수교를 기념하는 행사를 통해 외국 현지에 문화공연단을 파견하여 보다 수준 높은 한국의 문화를 외국인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들의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공외교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시행하며 홍보하는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과 청년 및 시니어 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청년 공공외교단' 및 '시니어 공공외교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저개발국의 예술분야 영재들을 위해 국내 예술전공 학생들이 현지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개도국 문화꿈나무', 우리 대학생들을 재외공관에

파견하여 공공외교 인력으로 활동하도록 하는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공외교 활동의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이 지속 추진됨으로써 우리 외교의 지평이 확대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국의 공공외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중견국 이미지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의 3대 이사회인 안보이사회·인권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파트너십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국제 ODA 거버넌스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력 메커니즘인 MIKTA 외교장관회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유럽 중견국협의체인 비제그라드 그룹 및 북유럽 중견국협의체인 노르딕 협의회와 각각 협력 메커니즘을 출범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아세안, GCC 등 중견국 지역협의체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글로벌 중견국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축로서 활동함으로써 중견국들의 선의의 영향력의 시너지가 글로벌 무대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중견국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을 외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통일 공공외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외교 인프라 강화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공공외교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별·국가별 맞춤형 공공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주요국가와의 공공외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2 차 회의가 개최된 한-중 공공외교포럼, 금년 7 월에 최초로 개최된 한-미간 공공외교 차관급 협의가 정부간 공공외교 네트워크 구축의 대표적인 예이며, 국제교류재단을 중심으로 한 민간 공공외교기관간 네트워크 구축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및 민간의 공공외교 네트워크를 제도화하여 국제 공공외교 허브로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맺음말]

오늘의 허심탄회하고 생산적인 논의결과가 씨앗이 되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공공외교 분야 협력이 강화되며, 양측이 새로운 상생과 협력의 역사를 일구어 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실크로드재단과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1.2 우즈베키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1.2.1 양국 문화협력강화를 위한 한국-우즈베키스탄 간의 공공외교 활성화

- 아지즈 마수토프,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아태지역 국가 협력국장

Дальнейшая активизация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между Узбекистаном и Южной Кореей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двустороннего культурно-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Уважаемые дамы и господа,

Уважаемые организаторы сегодняшн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жде всего, позвольте выразить искреннюю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Фонду «Шелковый путь» за организацию сегодняшнего форума, посвященного развитию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стран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Как Вам известно, на фоне активной глобализ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и культурных ценностей, а также продолжающихся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конфликтов в отдельных регионах мира,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механизмов для улучшения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укрепления толерантности и развития культурно-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Министерство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существляя комплексную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казывает всестороннее содействие процессу продвижения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Уважаемые дамы и господа,

Мы всегда с особой гордостью подчеркиваем, что нас с Кореей и ее народом объединяет не только современное насыщенное и многогран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но и исторические параллели, связанные с богатыми торговыми и гуманитарными контактами эпохи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Уже тогда наши народы щедро делились накопленными знаниями и опытом, цивилизационно обогащали друг друга в культурном и духовном плане.

Известен факт, что в VII веке древнее коре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Когурё отправило своего посланника в государство Согдиана – территория современного

Узбекистана, для заключения договора о взаимном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Доказательства этому хранятся в музее Афросиаб древнего города Самарканд в виде настенных фресок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послов государства Когурё на приеме тогдашнего правителя Согдианы – Вархумана.

Именно через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и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из Индии в Корею проник буддизм, ставший духовной осново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исторических летописях зафиксированы воспоминания множества корейских паломников,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по Великому Шелковому пути через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для посещения буддий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и святынь, и впоследствии описали свое путешествие.

Современны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Узбекистан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были установлены в 1992г., и за прошедший 22-летний период состоялись 14 саммитов лидеров двух стран. В 2006 году узбек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однялись до уровн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благодаря интенсивному политическому диалогу и обоюдному стремлению сторон, между нами установились отношения открытости,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и доверия, тесн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которое с каждым днем наполняется конкретным практическим содержанием.

На мой взгляд, отдельную и немаловажную роль в установлении такого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доверия и углублении процессов духовно-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сыграла и продолжает играть успешно проводимая народная дипломатия.

Считаю важным отметить, что в контексте развития узбек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имеет как традиционные формы и направления, характерные для данной сфер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так и отличительную особенность.

К числу традиционных можно отнести обмены по линии культур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научно-ана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ов, которые в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приобрели широкий размах.

В 1992г., еще в самом начале зарождения узбек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а современном этапе, в Ташкенте открылся первый в своем роде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образования, организующий на конкурсной основе языковые стажиров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для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вузов и студентов.

С 1995г. в рамках подписанного между Глав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города Ташкента и Сеульским департаментом образования договора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на ежегодной основ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Ташкента повышают квалификацию в Южной

Корею по различ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В 2012г. в Ташкенте открыт Узбекско-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в котором ежегодно обучаются свыше 300 человек по таким направлениям, как ремонт и техническ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автомобилей,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электроника,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Хочу особо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в ведущих высших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Узбекистана, таких как Узбекский и Самарканд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ниверситеты мировых языков, Университет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дипломатии функционируют Центры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сего в республике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13 вузах, а также в 28 школах и лицея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узы Узбекистана поддержива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более 30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и научно-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Южной Кореи, которо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развитие связей в различных областях учебной и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мен профессорско-преподавательским составом и студентами, а такж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симпозиумов, семинаров, проведение совместных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С удовлетворением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с 1995г. в Пусанском институт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и с 2004г. в Университет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Хангук функционируют факультеты изучения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где в том числе преподается узбекский язык.

В октябре 2014г. в г.Ташкент открыт филиал ведущего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ха, гд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обучение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компьютерный инжиниринг, программный инжиниринг и инжиниринг компьютерных сетей.

В декабре 2014г. в рамках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екта с Национ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Национ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е Узбекистана открыт читальный зал «Окно в Корею», оснащенный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м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информационными ресурсами (книги, CD, DVD) по языкознанию, культуре, туризму и истории Кореи.

Сегодня стали традиционными обмены визитами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двух стран, которые играют связующую роль в духовном сближении наших народов.

Узбекские творческие группы и театр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уют в проводимых в Южной Корею ежегод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как Сеульская ярмарка дружбы, K-POP фестивали, различные конкурсы, где традиционно занимает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В ноябре 2008г. в Южной Корею проведен Фестиваль культуры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Шелковый путь» с организацией фотовыставки, показов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ов и концертов с участие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коллектива «Согдиана».

С ноября 2009г. по октябрь 2010г.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музее Кореи проведена выставка древнего искусства Узбекистана, на которой впервые широк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уникальные исторические экспона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давние культурно-духовные связи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активно занимается популяризацией традиционной и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в нашей стране путем проведения концертов,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и фото-выставок, мастер-классов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и других мероприятий, неизменно привлекающих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почитателей.

Общеизвестен настоящий «бум»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овременной культуры, в т.ч. фильмов, сериалов, музыки, которые по праву завоевывают все большее число почитателей во всем мире, включая и Узбекистан. Думаю, что не ошибусь, если скажу, что такая популярность основывается, во многом, на сходстве менталитетов наших народов, общепризнанных культурных и человеческих ценностей.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овой формой продвижения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тало проведение «Каравана на Шелковом пути», включающего целый комплекс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его рамках уже дважды в 2012 и 2014 годах в ряде городов Узбекистана, как Ташкент, Самарканд, Джизак, Фергана и Андижан проведены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е конференции, бизнес-форумы, фестивал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ов, выставки корейской каллиграфии и фото-выставки,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е семинары,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футболу, конкурсы детского рисунка и т.д.

Поистине, символом крепости узбекско-южнокорейской дружбы стал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 г.Ташкенте Сеульского парка, открытие которого состоялось в сентябре 2014г. Созданный по всем канонам корейского традиционного паркового ландшафта, этот маленький острово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самом центре узбекской столицы стал излюбленным местом отдыха горожан, место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 проникновения культур народов наших стран.

Хотел бы особо выделить специфичную особенность узбекск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о линии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Это проживание в Узбекистане многочисленной – 180-ти тысячной диаспоры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своеобразным «духовным мостом»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и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укреплении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государствами. Волею горькой судьбы, более 75 лет назад оказавшие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збекистана, они обрели здесь свою вторую родину и являются равноправными уважаемыми гражданами нашей страны.

Говоря о ближайших перспективах и новых долгосроч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узбекск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читаю важным отметить, чт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Меморандумом, подписанным в ходе недавнего визита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Кын Хе в Узбекистан в июне 2014г., в нашей стране будет создан Дом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ресторан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гостиницу, сад и др. Уверен, что этот грандиозный, и что особо хотел бы подчеркнуть, уникальный проект, станет очередным проявлением крепнущей дружбы и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народов наших стран.

Подытоживая вышесказанное, не могу не упомянуть о той неоценимой роли, которую играет Фонд «Шелковый путь» продвижении культурно-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При участии Фонд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проводятся различные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том числе упомянутый мной «Караван на Шелковом пути», выделяются стипендии для узбекских студентов для обучения в вузах Южной Кореи, организуются стажировки и ознакоми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для узбек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При активной поддержке Фонда, также в Сеуле организуются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оляризации узбекской культуры среди широкой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ользуясь настоящей возможностью, хотел бы искренне поблагодарить Фонд за его благород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Дамы и господа,

С учетом необходимости дальнейшего укрепления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считаю важным акцентировать на важности нижеследующего:

-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в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я научно-акаде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а также реализ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проектов;

- увеличении количества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для студентов двух стран, а также организации семинаров и встреч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бизнес, культурного и научного сообществ;

- формировании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в Узбекистане и Южной Корее посредством проведения различных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кинофестивали, совместные телерадиопередачи, музык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р.);

-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компаниями в целях увеличения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отока из Южной Кореи в Узбекистан.

В завершение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не может заменять традиционную дипломатию, но она помогает подготовить прочную базу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комплекс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о-гуманитарной сферах.

С учетом этого,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остается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элементов современной парадигм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которые отвечают интересам всех сторон.

1.2 [우즈베키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1.2.2 공공외교에 대한 우즈베키스탄의 기본적인 접근법

- 아지즈 이스마일로프, 우즈베키스탄 외교부 국장

“Basic Approaches to Public Diplomacy in Uzbekistan”

Introduction

It has always been a great pleasure for me to take part in such kind of events. Hence I am very glad to be invited here, to see colleagues from other countries gathered here to discuss and exchange the views on one of the most debated and elaborated topics, influencing the entire future of the modern diplomacy in so many ways – “the public diplomacy”.

Public diplomacy, although relatively new as it was used only in 1965 by Edmund Guillion, is nowadays; maybe more than ever, very much discussed and talked about. There is a general belief in public diplomacy’s potential of influencing public opinion when creating and implementing foreign policies, encompassing dimens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go beyond traditional diplomacy. There is also an opinion that public diplomacy does not only deal with the governments, but rather addresses non-governmental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Some experts state that public diplomacy has the potential of influencing governments through influencing their citizens, even with today’s social media. In other words, public diplomacy traditionally means “government-to-government” communication aimed at foreign audiences to achieve changes in the “hearts or minds” of the people. It also becomes a tool for building favorable public environment to pursue specific or particular interests.

As all of us know in the globalized world of 21st. century certain state responsibilities remain intact and should remain as such, but the non-state actors become more vivid in the field. Such an in-depth change in contemporary diplomacy, which obviously has become public diplomacy, also raises specific challenges to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eir aims of securing the national development interests with pragmatic solutions. There are more than two hundred independent countries in today’s globalized world, wherein most of them are small and challenged by the economy of volume in a number of aspects.

Finally, allow me to express my firm belief in the success of this important gathering, which testifies to the willingness of finding common approaches and solutions to the current challenges, as well as at a global level. On that note, I will conclude my brief introductory and switch to the main part of my report on Uzbekistan’s basic approaches to public diplomacy!

I

It is an open secret that the Independenc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n 1991 has given to the Republic great opportunities to live in peace and constrain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 with all sovereign countries of the world in the

sphere of economics, politics, culture, science, education and sports.

Looking in more detail at Uzbekistan's public diplomacy, three major goals can be distinguished.

First, Uzbekistan wants to be seen as a country that works hard to give its people a better future and seeks understanding for its political system and policies. The image stressed is that of a developing country in the middle of a slow but fundamental economic transition, confronted with enormous challenges to which no easy responses exist. In other words, the world may not expect Uzbekistan to take radical steps in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 as rash policies will destabilize the country and bring misery to the people. Uzbekistan's efforts to inform the public of its policies via websites, white papers, magazines and scholarly exchanges should be seen in this light.

Second, Uzbekistan wants to be seen as a stable, trustworthy and responsible economic partner, a rising economic power that does not have to be feared. This is the crux of Uzbekistan's policy of good neighborliness, part of the peaceful strategy and well-illustrated by its balanced diplomacy in the region.

At the same time it wanted to show the West that Uzbekistan is trusted in the region. In this field the Uzbek government clearly supports its public diplomacy with actions.

Third, national authorities want Uzbekistan to be seen as a trustworthy and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pable of and willing to contribute actively to world peace. The most recent and obvious illustration of this policy is Tashkent's current role in salvation of Afghan problem, providing to Afghan people humanitarian aid, development of infrastructure and assistance to economic restoration of this country.

Last but not least, Uzbekistan wants to be respected as an ancient culture with a long history. The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cultural events that Uzbekistan organizes all over the world should strengthen this image.

But above all of these, the main priority target of Uzbekistan should be pointed out in this regard. That is - providing to the world community and international partners the real, objective and true information on ongoing structural and economic reforms, sustainable growth and progress of the country in all aspects of state life, achievements reached in the years of sovereign independent development.

II

Uzbekistan uses the same public diplomacy instruments as other countries: the media, internet, events and projects, celebrities and publications.

This is a particularly important factor when we look at the domestic media as an instrument. Uzbekistan's domestic media were until recently the main

instruments to inform the outside world about Uzbekistan. There have been English-language newspapers and journals targeted at foreign audiences. Uzbekistan also has an English-language news program that can be received by diplomatic missions residing in the country.

There is an official English-language service publication “Tashkent Today”. Nowadays, in addition to its own media, Uzbekistan’s public diplomacy makes more and more use of international media. A large number of foreign correspondents are accredited to Tashkent, Uzbek officials often give press conferences during foreign visits and a new generation of Uzbek diplomats has started to address the foreign press.

(Example on Ambassadors’ interviews)

Furthermore, Uzbekistan makes effective use of the possibilities of the internet. You do not have to speak Uzbek to spend an afternoon surfing the Uzbek internet, visiting accessible and sometimes beautifully designed websites in English or even several other languages. Newspaper archives are easily accessible and you can download new and old articles for free. Many of these websites are developed specifically for the purpose of propaganda/public diplomacy.

The importance of publications as a means to reach out to a wide audience has decreased with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s mentioned earlier, Uzbekistan devotes much attention to explaining its policies in white papers.

Not to be underestimated is the power of the fourth instrument that Uzbekistan increasingly uses: events. With the aim of increasing its visibility in the world, Uzbekistan has become an eager organizer of big events. Annually various events are held in Uzbekistan, such as International Fairs in Tourism, Industry, Services, Agriculture, Science & Technology etc.

Finally, there are innumerable exchanges among schools, universities, chambers of commerce, twin cities and so on.

In other words, we can sum up and state that a ‘public diplomacy’ approach in Uzbekistan focuses on the creation of civil society, the promotion of a stable and secure middle or professional class, giving people ‘ownership’ of both the economy and political institutions and creating the conditions in which indigenous political institutions could emerge.

Some of the building blocks in this approach should be obvious: exchange programs and networking between universities and schools; promotion of an independent media; to this end exchanges and networking between journalists and journalists associations; cultural events; sporting links; promotion of civil society activities that develop social capital; links and networking between political parties,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 vibrant SME sector.

III

In developing and deciding upon Uzbekistan’s public diplomacy activities, a major role is reserved for the National Broadcasting Teleradio Company,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ouncil of the Society on Friendship with Foreign Countries.

In MFA – Press-service, “Jahon” Information Agency.

Globalization and the expansive reach of mass communications provid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ith the opportunity to use information as a tool to pursue Uzbekistan’s foreign policy agenda and bring about a better understanding of its goals and objectives. At the same time public diplomac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omotion of Uzbekistan’s foreign policies, as it helps to communicate national interests and position to all. The responsibility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rough its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public diplomacy channels,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s well as to rebut false allegations targeted towards Uzbekistan. A proactive, timely, well-coordinated, accurate, innovative, factual and informative public diplomacy is essential in advancing Uzbekistan’s foreign policy imperatives.

Uzbekistan has already implemented a communication and media strategy that helps to project the image of Uzbekistan. They are called to publicize Uzbekistan’s economic and social achievements and explain Uzbekistan’s official positions and policies on issues more fully to foreigners, to create a more favorable image of Uzbekistan in world opinion.

Besides drawing closer to foreign audiences, the Foreign Ministry is also keen to reach out to domestic audiences.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term ‘public diplomacy’ is even used for publicity work aimed at domestic audiences. In order to shorten the distance between diplomats and the ordinary people, the Foreign Ministry gives lectures, organizes discussions.

In conclusion it is noteworthy that Uzbekistan may not (yet) have a grand public diplomacy strategy, but looking at the scope and variety of Uzbek public diplomacy and considering how well-thought-out many of the actions are, one cannot but conclude that Uzbekistan is doing well and is even ahead of many countries in this area. Uzbekistan, however, needs public diplomacy more badly: Uzbekistan is ‘suspected’ for many reasons in many parts of the world. Uzbekistan’s supreme authorities are concerned about Uzbekistan’s image and standing in the rest of the world and devote much attention to creating more understanding for Uzbekistan’s policies.

*by Aziz Ismailov
MFA Republic of
Uzbekistan*

1.3 키르기스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1.3.1 공공외교, 국제협력 활동의 현황과 전망

- 아자맛 카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외교부 전권대표부 연구원

"Форум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ей" и "Дружеского вечера, посвященного отношениям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стран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23-го декабря 2014 г.

ДОКЛАД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текущее состоя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ерспектив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Здравствуйтесь, уважаемые друзья!

Меня зовут Азамат, я представляю Кыргызстан.

Пользуясь моментом, с честью поздравляю всех Вас и народ этой прекрасной страны с наступающим новым 2015 годом.

Выража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организаторам Форума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мероприят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асштаба и желаю достижения намеченного.

Девиз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Благо всего человечества» в полной мере раскрывает смысл глубокой дипломатии.

Развитие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через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Особую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выражаю Корейскому фонду «Шелковый путь»(Silk road) за поддержку, которая играет больш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диалога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и вносит св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и культурного обмена и понимания различных целей.

[Шелковый Путь](#) – как портал великой цивилизации,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культурную и уникальную ценность.

Форум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ей мост возрождения и возобновления тысячелетнего диалога цивилизаций.

Роль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особую роль институтов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мире.

Я сам заинтересовался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ей относительно недавно, и хотел бы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для развития обменов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необходимо объединить наши усилия.

Сегодня, когда Мир стремительно меняе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т нас требуется понимание.

Мы, участники начала определенного этап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еред нами новые и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возможности развития контактов, расширение кругозора, важно, дать должную оценку этим усилиям.

Форум - как проводник, соединяет наши страны, нашу материальную, художественную и духовную культуру,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обмена идеями и ресурсами.

При таких процессах,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становится особенно актуальной.

Отрадно т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ших стран уделяет внимание и желает придать новый импульс отношениям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Гражданское общество играет важную роль в жизни наших стран.

Считаю, что каждый из нас обязан понять собственную роль в нашей глобальной миссии.

Наша цель - установление тесных и долгосрочных контактов, стимулиро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интереса, улучшен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народами, обмен знаниями.

Опыт формирования позитивного имиджа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ого достигла эта прекрасная страна, заслуживает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Я уверен, что в будущем это окажется полезным для Кыргызстана.

Культурные коды восприятия наших стран идентичны, они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такими ценностями, как, философия жизни, сила духа, уважение старших, гармония с природой, а также искусства.

Понимая и принимая практическую пользу от кооперации наших совместных усилий, улучшение миссии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т интеграции кабинетов к интеграции улиц, постепенное увеличение скорости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диалога, - наша обязанность.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фору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поднимется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и создает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наших отношений.

Рекомендации для улучшения и укрепления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посредством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 Призыва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ан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поддержать дальнейшие усилия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стран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разработать единую стратег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оддержать проекты по молодежному социальном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у.

В заключение -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усилить общественный интерес к институту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как важнейшего канала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Не будем забывать -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начинается дома.

В этом смысле Форум под названием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ей» и «Дружеский вечер, посвященный отношениям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идет в ногу со временем, и этому можно только порадоваться.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иму участие в обмене мнениями по разным пунктам и буду рад к вопросам.

Спасибо за внимание!

Размышляя о судьбах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Кыргызстане.

Перед Кыргызстаном стоят неотложные задач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доверия народа к Правительству и устранение печально известных последствий июньских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столкновений.

Сегодня Кыргызстан ведет открытую внутреннюю и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За прошедшее время предыдущих революций в Кыргызстане внутренняя 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претерпела кардина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В Кыргызстане нет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где изучалась бы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или специального органа, посвященного ей, - она почти не затронута в университетских курсах и программах подготовки специалистов.

Как и други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институционализации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я, интересуюсь вопросом: *Есть ли в Кыргызстане орган, который бы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управлял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ей? Есть ли механизм координации?*

Кыргызстану необходимо полностью осознать актуальность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учитывать ее достижения в реализации свое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екомендации для Посольства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 Широкое освещение результатов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действии (поощрение интересов кыргызских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уже связаны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происходит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воздействие на мнение всех остальных, идентифицируя их с первой группой наших граждан).
- Развитие дипломатии обмена и культурной дипломатии в целях постепенного возвращивания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и взаимного доверия (обмен делегациями, научный диалог, помощь в изучении языка, мероприятия, связанные с культурой и искусством).

"Forum for public diplomacy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and "Friendly evening devoted to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23rd December 2014

REPORT

Public diplomacy and the current status of activities and perspectiv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Good afternoon, dear friends!

My name is Azamat, I introduce Kyrgyzstan.

Using this nice moment,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with honor on New Year 2015 celebration.

I express my gratitude to the organizers of the Forum for organizing the this event in the international scale level and I wish that you achieved your goals.

The motto of the country of Morning Calm "Benefit of Humanity" reveals the meaning of a deep public diplomacy.

Development of public diplomacy through cultural exchange:

I express my special gratitude to the Korea Foundation "Silk Road" for the support,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dialogue between the two countries, making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ultural exchange and understanding of different purposes.

Silk Road - as a portal of a great civilization and provide a cultural and unique value.

Forum of Public Diplomac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Central Asia is a bridge of rebirth and renewal of the millennial dialogue of civilizations.

The role of Public Diplomacy:

Today, we see the specific role of Public Diplo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where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building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I started to be interested in public diplomacy recently, and I realized that for the development of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need to unite our efforts.

Nowadays, when the world is changing rapidly, the first requires us understanding.

We are the witness and participants of the beginning certain stage of cooperation, new and equal opportunities, opportunities of the contact

development, expansion of the horizons and it is important to give a proper assessment of these efforts.

Development of technology information makes communication processes to be lightning and accessible to a huge global society, expanding many forms of humanitarian contacts.

Forum – is a conductor, connects our country, our material, artistic and spiritual culture, it is an opportunity to exchange ideas and resources.

In such processes, Public Diplomacy is particularly important.

It is encouraging that the Government of our country pays attention and wants to give new impetus to the relations of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Civil socie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life of our countries.

I believe that each of us must understand their own role in our global mission.

Establishing a close and long-term contacts, promotion of public interest, improving relations between our fraternal people, knowledge sharing, the goal of cultural dialogue with the world.

The creating experience is a positive image of the state, which was reached by this country, deserves special attention.

I am sure that it will be useful for Kyrgyzstan in the future.

Cultural codes of perception of our countries are identical; it is accepted by such values as a philosophy of life, strength of spirit, respect for elders, harmony with nature and art as well.

Understanding and accepting the practical benefits of co-operation of our joint efforts, improving the mission of public diplomacy from the integration of the office of the integration of the streets, the gradual increase in the rate of intercultural dialogue - is our duty.

Thankfully to this forum,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rise to a new level and it is another step in the creation of infrastructure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our relations.

In conclusion - I consider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ublic interest in the institution of public diplomacy, the idea of its revival as a major channel of interaction between our countries, to help people who might be helpful to each other in the dissemination of new positive ideas.

Develop activities in the field of education, culture, support youth projects and sports;

We will not forget that Public Diplomacy starts at home.

In this sense, the Foundation "Silk Road", as the organizer of today's forum, entitled "Public Diplomacy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and "Friendly evening devoted to the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keep up with the times, and it can only rejoice.

I will take part in an exchange of views on various points with pleasure and I will be glad to any question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Recommendations on the conclusion of Forum:

- I call the Government of the country and participants of this Forum to support the further Public Diplomacy between Korea Republic and countries of Central Asia.
- Development of the strategy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 joint project programs.

1.3 [키르기스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1.3.2 키르기스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 굴나라 키스카라예바, 주한 키르기스스탄 대사관 부대사

Посольство КР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Уважаемый Председатель,

Уважаемые дамы и господа,

Позвольте приветствовать Вас всех и поблагодарить за организацию данной встречи.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поддержала концепцию созд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яса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Мы убеждены в том, что дальней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и последующего углубле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торгов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которые расположены вдоль маршрута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буду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духа древне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в котором плодотворно сочетаются принципы толерантности, равенства и взаимной выгоды. Совмест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ояса нов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явится весьма эффективной антикризисной инновацией как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так и в политическом плане, сильным конкурентным преимуществом для экономик и бизнеса стран, которые расположены на пути его прохождения. В зоне пояса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проживает порядка трех миллиардов человек,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собой крупнейший в мире рынок с самой высокой устойчивостью внутренней экономики и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м потенциалом ее развития.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сложно найти страну с мононациональным составом,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они полиэтничны. Кстати Кыргызстан является поликультурно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ной. Принципы толерантности и равенства, заложенные в фундаменте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их реализация в любо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стране мож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звитию идей равенства и братства народов, укрепления межэтн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охранения разнооб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нностей внутри страны, а за ее пределами развивать взаимовыгодные торговые, культурны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За год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наша страна прошла непростой и тернистый путь становления. Прошедшие годы были сложными, и тем не менее, мы добились значительных успехов. У нас появился свой особенный, но бесценный опыт построения сильно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и то, что принято называть своей новейшей историей. Сегодня, мы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можем сказать, что в стране созданы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полноценной демократии. Одними из первых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ввели парламентскую форму правления. Идет процесс развития органов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Введены институт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контроля во все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ах. Для подъема экономики и укрепления свое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принята Национальная Стратегия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период с 2013 года по 2017 год.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привлечение инвестиций в приоритетные отрасли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посредством минимизации вмешатель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 дела бизнеса через сокращ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лицензий, проверяющих органов, оказываемых государством услуг. Постепенно внедряются механизм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планируется реализация пилотных проектов,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улучше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Предсказуемость и стабильность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системная борьба с коррупцией, гибкая регуляторная политика в сфер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а также создание благоприят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способствуют экономическому росту, прогнозируемому на период 2014-2016 годы на уровне 6,5 % в среднем за год.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 самых крутых переломах истории, нам удалось сохранить главную ценность –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Собственную и независимую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Кыргызстан начал проводить только с момента 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ыргыз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подчеркивает свою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общепризнанным принципа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и ведет многовекторную политику. При этом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ыргызстана является углубл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о всеми сопредель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базируются на традиционно друже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двумя братскими народами, их исторической связи, а также взаимном стремлении к поддержанию и развитию взаимовыг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ыргызстан и страны ЦА региона сотрудничают и поддерживают друг друга в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Страны играют важную роль в деятельности ШОС и СНГ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В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повышенн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ситуации в приграничных района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борьбе с незаконным оборотом наркотиков и преступности. Имеется определенный невостребованный потенциал в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который необходимо всемер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в частности, в таких секторах экономики, как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развит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й кооперации, создание совмест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расширение товарной номенклатуры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и пр. Уверена, что отношения, которые олицетворяют очень тесную связь между нашим прошлым, настоящим и будущим, будут и в дальнейшем поступательно развиваться на основе принципов добрососедства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региона, конструктив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учета взаимных интересов во благо народов наших государств. Традиционно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наших стран, их глубок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связь, заложенная на путях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будут и далее развиваться.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породил колосса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сказок, легенд, устных преданий, фантастических домыслов, исторических и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фальсификаций и привел к созданию обши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страноведческого, культурологическ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военного,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содержания во всех странах, и не только там, где пролегал Великий торговый путь, но и в прилегающих регионах. Культурное, историческое и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значение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елико для всех народов Евразии. И в этом контексте «Евразийская инициатива»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ак Кын Хе, идея объединения континентов в эпоху новых вызовов заслуживают уважения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действия в ее реализации.

Касаясь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Р с РК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двусторонний торговый оборот еще не отражает потенциаль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наших стран. Имеется целый ряд факторов, которые необходимо адресовать. По мере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Кыргызстана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ет прогресс и будут раскрыты экспорт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страны. Во-вторых, солидный корейский бизнес еще недостаточно активен в Кыргызстане, а инвестирование экспорт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производств будет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трендов развития в перспективе. Между тем, китайские, российские, иранские и турецкие компании уже давно работают в Кыргызстане. В –третьих, важна роль правительств двух стран в открытии перспектив для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Точек роста в развитии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ного ... требуется взаимный интерес кропотливая работа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В заключение хотела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наши народы имеют общие корни, наши языки принадлежат к урало-алтайской языковой группе. Имидж Ю.Кореи среди кыргызстанцев очень популярен, привлекает образ успешной страны, которая вошла в ряд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мира. Нам необходимо культур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обмен между нашими народами. В этой связи позвольте привести слова великого писателя, гуманиста, дипломата Чынгыза Айтматова, который сказал- « какие бы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промышленные свершения не достигались, в конце концов любые достижения будут измеряться культурой и духовностью».

Благодарю за внимание.

Камсахаминда.

1.4[카자흐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1.4.1 키르기스스탄의 공공외교 현황과 정책

- 아세트 이세날리,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참사관

Выступление
Советника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Исенали на Форуме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г.Сеул, 23 декабря 2014 г.)

Уважаемый Посол Чой Дже Кын!
Уважаемый профессор Ом Гу Хо!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Дамы и господ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все большую роль играет публичная или народная дипломатия, ставшая дополнением и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официальной дипломатии. Как известно, данная отрасль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тношения в таких областях, как культура, образование, искусство, спорт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аз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не должно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только сил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Важнейшая роль здесь принадлежит самим народам и их наиболее актив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исходит из того предположения, что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может оказать знач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деятельнос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работу все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преследует цель расширения диалога между гражданами своей страны и зарубежными партнерами. Это предполагает актив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бмен, созда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программ, пропаганду своей культуры.

С появлением интернета, смартфонов и возможности быть всегда «online», где бы вы не находились понятие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приобретает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значение. Посредством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практически весь мир так сказать «на связи», люди делятся своими идеями, переживаниями, комментариями, опытом и просто настроением. Пользуясь твитером или фейсбуком мы с вами становимся т.н. «твипломатами» и «фейспломатами».

С момента обретен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азахстан стал использовать для осуществления задач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службы выработанные нормы и правила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опыт мировой дипломатии.

Накануне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Казахстан выступил с яркими инициативами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Антиядерное движение «Невада–Семипалатинск», которое возникло в Казахстане, является собой чистый пример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Логика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была достаточно прямолинейна – есть цель, и цель должна быть достигнута. Люди требовали закрыть полигон и немедленно прекратить 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чего они и добились на деле.

Народная дипломатия стала важ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деятельности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а Казахстана не только в гуманитар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сферах, но и в сфере экономики. В большинстве стран мира работают сегодн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мирной ассоциации казахов (ВАК),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ящие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ие конференции, концерты, выставки.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ют со своими историческими родинками диаспор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казахстанских немцев, поляков, греков, евреев, корейцев.

Территория Казахстана сегодня стала местом диалога государств и обществ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проблемам: проведения мног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онференций, совещаний и конгрессов, встреч между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государств, гражданских форумов, съездов духовных лидеров мировых конфессий, «Медиа-форумов», азиатских и миров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и пр.

Происходящие сегодня в мире сложные процессы требуют 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отражения в концептуальных подходах и практике казахстан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возрастает ценность аналитической и прогнозной работы в сфер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азахстана. Исходя из этого, при МИД Казахстана создан Совет по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е, в который вош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Парламента,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и крупнейш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то есть не только чиновники, но и члены научного эксперт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е преобразования в казахстанском обществе, становление нов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ы, формировани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развит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уверенного Казахстана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и мировым сообществом вызвали к жизни первые проявления складывающейся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Любая страна, претендующая стать заметной и быть влиятельной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должна уделять внимание созданию позитив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брендов и имиджа страны, которые становятся своеобразным нефинансовым капиталом.

Имидж страны – это его конкурентное преимущество, а брендинг страны – это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подход к развитию этого преимущества и видения того, куда страна может двигаться. В Казахстане стали уделять пристальное внимание брендингу страны, вырабатываю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дходы и методы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Мы усиленно изучаем опыт развитых стран использования т.н. «мягкой силы». В этой связи достойным внимания является южнокорейский опы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ой волны» - *халлю*, охватившей практически весь мир посредством телесериалов, фильмов и популярной музыки. Клипы «*Оппан кангнам стайл*» и «*Джентельмен*» не только побили все рекорды мировых чатов и вошли в книгу рекордов Гиннеса, но и прибавили жирный плюс имиджу Кореи и корейцев.

Одним из императивов современного этапа является привлечение молодежи к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бо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не проходило школу «пролетар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ма» и выросло в условиях независимых суверенных государств.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азахстан уделяется повышенное внимание.

В этой связи возникает вопрос: способно ли в будущем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олодеж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азных стран, обмен опытом - т.е. реализация идеи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 привести к тому, что в будущем будет решена проблема непонимания и конфликтов.

Сегодня Казахстан находится на пути выработки комплекс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 продвижению в мире образа современной и успешной страны, созданию новой модели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опираясь на лучшие гуманистические традиции казахстанской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льтуры.

В создании и реализации подобной программы все большую роль призваны игр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родной дипломатии – ученые, деятели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общественные и религиоз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за рубежом.

Особую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гуманитар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грают СМИ. При помощи социальных медиа можно усилить действенность и качество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бо контакты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озможны со всеми людьми,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национальными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субъектам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и дипломатии, невзирая на ге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епятствия, разницу во времени или политические ограничения.

Необходимо готовить специальные кадры, призванные работать в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Необходима си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Нам нужно полностью осознать актуальность публич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учитывать ее достижения в реализации свое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это долговременный инструмент и она будет эффективной, если будем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пояснять, в чем совпадение и разногласия между тем, что дела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что хочет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страны от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государства. В итоге, задача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публичная дипломатия была вовлечена в policy-making process.

Благодарю за внимание!

[Session II]

한국의 대중양아 공공외교

2.1[모두발언]

한국의 대중양아시아 공공외교 세션의 모두 발제문

- 강봉구, 한양대학교 교수

<한국의 대중아시아 공공외교 세션의 모두 발제문>

강봉구(한양대학교)

전통외교와 공공외교는 그 외교활동이 목표로 삼고 있는 대상에서 차이가 뚜렷하다. “전통외교가 국가나 그 밖의 국제 행위자의 대표자들 사이의 관계라면, 공공외교는 다른 사회의 일반 대중 및 비공식적인 특정 집단, 기구,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전통외교가 주로 정부와 외교관들 사이의 접촉이라면, 공공외교는 “자국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타국 국민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타국의 시민사회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문화, 가치 및 정책에 대해 알리고 우호적 여론 형성을 목표로 한다.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이러한 발신 활동은 과거의 대외 선전활동이나 문화외교가 치중했던 선전과 홍보의 일방향적 메시지 전달보다는 중앙아시아 주민들의 반응과 대응 발신에도 수용 민감성을 높이는 쌍방향적 소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신공공외교에서 강조하는 이러한 쌍방향성이 지구화 시대 공공외교의 실제 성과를 높이는 소통 메커니즘이다.

중앙아시아 공공외교 수행 과정에서 우리의 접근방식이 전략적 깊이와 성과를 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를 첨언하고자 한다.

첫째, 작은 나라, 중견국으로서 한국과 한국인의 긍정적 특성을 부각해 나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과거 제국도 아니었으며 현재 강대국도 아닌 한국이 보여 주고 각인시켜야 할 이미지 요소들 중의 하나는 ‘존중과 신뢰’이다. 한국은 상대국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나라이며, 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이 자국의 국가이익과 상업적 이익만을 챙기는 나라가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원조하는 진정한 우방임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태도와 접근방법이 필수적이다. 중앙아시아 엘리트와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제국’이라는 인식과 함께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고 있다. 중견국인 한국에 대해 ‘존중과 신뢰’의 이미지를 갖게 되면, 이러한 국가이미지는 여타 강대국들의 속성과 비교하여 대등한 동반자로서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둘째, 한국 공공외교의 대상인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대상에 부합하는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중앙아시아 주민들은 타격을 제외하고는 투르크계의 무슬림이고, 국가들의 경제 수준은 개도국 단계에 있으며, 정치사회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특정 공공외교 행위가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우리가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요점이다. 이들은 개도국이며 에너지자원 의존형 산업구조 속에서 변변한 제조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원한다. 이것이 단순한 에너지자원 개발 협력을 넘어 한국으로부터 여러 산업생산

분야에서 기술이전을 선호하며, 산업 현장을 담당할 산업·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원하는 이유이다.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공공외교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공공외교의 내용과 접근방법은 달라야 하지만, 주관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를 간과하기 쉽다.

셋째, 민과 관의 노력을 잘 조율하여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외교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관리와 학생들이 한국으로 초청되어 다양한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다. 연수과정 참여에 대한 피드백의 평가와 체계적 관리 그리고 이를 다음 행사에서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해당 인력들을 네트워크화 하기 위한 사후 관리 지침도 따라야 한다. 현재 타슈켄트와 알마티의 KOICA 현지 사무실에서는 한국 연수이수자들을 위한 동문회 결성 등으로 이들을 네트워크화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제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연수 경험자들의 피드백을 평가하고 반영하며, 네트워크를 축적해 나가는 체계적 관리 노력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공공외교에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우리의 소프트파워가 공공외교의 지속적 성공과 장기적 전망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충실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 공공외교의 장기적 성패를 좌우할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공공외교가 지속성과 전망을 갖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 원조의 바탕 위에서 지금까지 축적해온 소프트파워 자산을 홍보하고 활용하여 국가이미지를 높이려는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의 공공외교는 다른 강대국들의 그것과 비교해도 매력이 있는 한국의 고유한 소프트파워 콘텐츠를 창조해나가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1.1. 토론자 참고자료:

한국의 대중양아 공공외교

- 강봉구, 한양대학교 교수

아래의 링크 파일 인쇄필요:

[session 2W7_2_2_참고자료_강봉구_한국의_대_중앙아시아_공공외교_-강봉구.pdf](#)

2.2. [Panel]

한-중앙아시아포럼_토론문

-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1. 한류?

홍콩영화는 왜 어느 순간 한국에서 존재감이 사라져 버렸을까. 주윤발과 유덕화에 열광하고 천녀유혼을 보며 유채이탈 착각에 빠지던 속에서도 홍콩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있게 보는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국인들은 홍콩이 아니라 홍콩에서 만든 영화만 찾다가 유행이 지나자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한류에 취해있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주제가 아닌가 싶다.

외국에 나가보면 적잖은 한국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한류와 함께, 중국과 일본에 대한 관심에 더 놀라게 된다. 차이가 있다면 한류는 아직 대중가요나 드라마 같은 유행의 영역이라면, 중국과 일본에 대한 관심은 깊이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가령,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 과정 지원자가 해마다 200 명이 넘는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은 정규 관리 인력을 50 명이나 고용해 중국학 도서관을 운영한다. 반면 영국 옥스퍼드대학은 1994 년 개설한 ‘한국학 프로그램’을 2007 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가 한국 기관에서 급히 지원금을 보내서 가까스로 문닫을 위기는 벗어났다. 이 대학에서 중국학 과정은 1875 년 설립됐고 일본학 과정은 1960 년 문을 열었다.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는 2000 년 한국어학사과정을 개설했지만 그 해 지원자는 두 명에 그쳤다. 2002 년 다시 학생을 선발했지만 역시 지원자는 2 명 뿐이었다. 2004 년에 10 명이 지원했지만 결국 이들이 한국어 과정을 수료한 2006 년 이후로는 새로운 학생들을 뽑지 않고 한국어과정 자체도 사라졌다. 이 대학 박노자 동방언어·문화연구과 교수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신청하는 학생이 있으면 자매결연을 맺은 연세대에 교환학생으로 보내고 학점을 인정해주지만 그마저도 연간 1~2 명에 그친다.”고 말했다.

2. 일본한테 배우기

사실 유럽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유럽에 뿌리박은 일본 문화다. 독일 남부 하이델베르크 기차역에 있는 서점에 들어가면 한쪽에 일본 망가 번역본이 별도 칸에 빼곡하게 진열돼있는 걸 볼 수 있다. 독일어로 번역된 일본 망가를 펼쳐봤다. 책 자체도 일본식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도록 편집해 놓았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 시내 가판대에서는 포르투갈어로 번역된 일본 망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언제부턴가 한국에선 일본을 ‘지는 나라’ 취급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1990 년대 ‘일본은 없다’가 도발적인 주장이었다면 2000 년대엔 알게 모르게 상식처럼 돼 버렸다. 하지만 외국에서 조금만

지내보면 그 ‘상식’이 사실은 ‘몰상식’이라는 것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깨달을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도 여전히 일본은 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유일한 독특한 관점인 ‘일본은 없다’가 알고 보니 표절이었다는 걸 공공이 성찰해볼 일이다.

1867 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 2 차 만국박람회 이후 유럽에선 ‘자포니즘’이란 이름으로 일본문화가 유럽에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프랑스에선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전문잡지까지 등장했다. 19 세기 인상파 화가들인 클로드 모네, 에두아르 마네, 에드가 드가, 피에르 르누아르, 폴 고갱 등이 모두 일본 풍속화에 심취했다. 파리에서 일본 그림을 본 뒤 화풍 자체를 바꾼 빈센트 반 고흐는 친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내 모든 작품은 일본 미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남미 역시 다르지 않다. 작고한 이성형 교수는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2010 년) 발표를 통해 “중남미 문인들은 일본풍에 대해 약간 경이로운 시선으로 접근한다.”며 일본 문학이 차지하는 위상을 소개한 바 있다. 그는 “하이쿠(俳句·일본 전통시양식)는 이곳 시인들이 즐겨 차용하는 시양식이다.”면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1968 년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설국’의 모티브에 매료되어 ‘내 슬픈 창녀들의 추억’을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시아 출신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나머지 두 명이 영국식민지 당시의 타고르(1913 년 수상)와 프랑스에 망명한 뒤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던 가오싱젠(2000 년 수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이 배출한 노벨문학상 수상자 2 명은 일본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는 또다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설국’을 쓴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968 년 “일본적인 정서의 진수를 표현해내는 위대한 감수성”이란 찬사를 받으며 일본인으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 이어 1994 년엔 오에 겐자부로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파리 에펠탑 인근에 위치한 일본문화원에 가보면 1 층에 일본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다. 이 곳에서 가장 놀란건 수천권에 이르는 일본 관련 책들이 거의 전부 프랑스어로 돼 있다는 점이다. 이 곳에선 단기적인 공연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대학과 관련을 맺고 일본학을 지원하고 상업성이 떨어지는 일본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돈 되는 대중문화는 민간이 알아서 하면 된다.

3. 한류 100 일작전?

해외문화홍보원이 2011 년 발간한 ‘재외 한국문화원 현황’에 따르면 한국문화원은 2010 년까지 설립된 16 곳을 통틀어 현지언어로 된 도서 비율이 10.7%에 불과하다. 영국과 미국을 뺀 12 곳 평균은 7.0%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영어로 된 책도 3.7% 뿐이란 얘기다. 일본까지 빼면 현지언어 도서가 3.9%까지 떨어진다. 베트남,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는 아예 현지어 도서가 한 권도 없다. 최대 교역상대국이자 수천년간 문화교류를 해온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한국문화원에 있는 중국어 책도 전체의 4%와 2%에 그친다.

□ 도서

분 류	권 수	대출빈도	언어별 분류 및 이용자수	선호도
철학	173 권	6%	○ 언어별 분류 - 한국어 : 98% - 현지어 : - - 영 어 : 2% ○ 연간 이용자수 - 1,740명	역사, 한국 전통예술
종교	86 권	1%		
사회과학	581 권	6%		
순수과학	129 권	3%		
기술과학	197 권	4%		
예술	198 권	41%		
어학	204 권	2%		
문학	1,103 권	32%		
역사	407 권	5%		
계	3,078 권	100%		

현지어 번역 사업은 장기적인 목표와 정책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한국 재외공관은 진득하게 장기적인 사업을 할 시간도 없이 대규모 문화행사 한번 치르고 준비하느라 임기가 다 지나간다. 다시 말해 좀 과장을 섞어서 말한다면 임기 3 년의 성패는 대규모 문화행사에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적이 필요한 정부기관, 막강한 홍보력과 자금력을 갖춘 기획사와 국가주의적 자부심이 가독성이 된다고 판단하는 언론은 서로 서로 손잡고 유럽을 ‘점령’한다. 마치 과거 유럽인들이 수천년 전부터 사람이 살던 곳에 깃발 하나 꽂은 다음 ‘발견’을 외쳤듯이.

사정이 이렇다보니 갖가지 무리수가 등장한다. 2011 년 7 월 30 일 폴란드의 한류 팬들이 한국 K-POP 가수들의 폴란드 방문을 기원하는 플래시몹을 바르샤바 최고 명소인 문화과학궁전 앞 광장에서 한다는 소식이 한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출처가 어디일까? 바로 그 전날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POP 공연 기원 플래시몹 행사-폴란드 바르샤바에서도 개최’란 보도자료를 냈다. 플래시몹 현지 사진을 확인하라며 바르샤바 주재 한국문화원 웹하드 아이디와 비번까지 소개했다.

4. 자랑하기 혹은 친구에게 귀기울이기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가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를 향유하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도대체 우리가 한류에 그리 목매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언론이 한국인 ‘혈통’에 따른 자부심을 그토록 강조하고 톰 크루즈나 오바마 같은 유명인사가 ‘안녕하세요’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온나라가 들쭉들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차라리 외국문화가 한국에 뿌리내리고 융합되고 있다는 걸 더 강조하고 더 촉진하는 보도태도가 한국문화 발전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을수가 없다.

신촌과 명동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일본음식 열풍을 ‘일류(日流)’라는 이름으로 한국 언론이 먼저 알리고 홍보하는게 일본 관광객을 끄는데도 더 유리한 거 아닐까. 마치 한국인들이 ‘유럽을 점령한 한국문화’에 혹해 유럽에 더 호감을 갖듯이 말이다.(발화점은 여기)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한국어 가르치자는 보도도 중요하지만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온 이들을 일일교사로 해서 한국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문화와 역사를 배우게 하자는 보도는 또 어떨까. 한국은 다양한 아시아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는게 관광수익에도 도움이 되고 하다못해 K팝의 매력도 더 키우는거 아닐까.

친구란 마음을 나누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관계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비유하자면 공공외교란 국제사회에서 마음을 나누는 친구를 사귀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은 모두가 잘 안다.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자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어린 시절 같은 반에 ‘우리 집 부자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전쟁을 딛고 새벽별보기하며 열심히 일했어. 덕분에 우리 집은 (너네 집보다) 아주 잘 살아. (너네 집은 못살지?)’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대했을지 금방 기억이 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아이를 일컬어 “재수없는 놈”이라고 부른다. 한국이 그런 아이로 비치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그리고 ‘그래 너네 집 부자다. 너네 집은 할아버지 아버지 죽어라고 일해서 부자가 됐지. 너도 죽어라고 일하고 있지. 넌 곧 정리해고될거고.’란 대답이 우리를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자.

2.3. [Panel]

중앙아시아에 대한 '협력형 공공외교'

-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중앙아시아에 대한 ‘협력형 공공외교’

Collaborative Approach to Korea's Central Asia Public Diplomacy

김 태환 (국립외교원)

-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원대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적 추진은 총체적 정책 프레임워크가 부재한 상태에서 해당 분야별, 국가별로 과제와 추진방향을 나열하고 그것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포장하는 ‘조합적 접근(assembly approach)’과 ‘국가중심적 접근(state-centric approach)’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와 더불어 유럽과 아시아에 ‘구 지정학(classic geopolitics)의 귀환’으로 영토와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국가간의 경쟁과 갈등이 현저해지고 있음.
 - 아시아에서는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및 동남아 국가들 간의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및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냉각됨에 따라 한국의 유라시아 구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또한 중국의 ‘신 실크로드 전략’과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EC: Eurasia Economic Union)은 중앙아시아에서 양국간 대립과 갈등의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역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하드 파워와 위계질서에 근간하는 국가중심적 접근인 전통적 지정학은 국가 간 고비용 경쟁구조로서 강대국들에게는 유리할 수 있지만, 강대국에 비해 하드 파워 자산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는 새롭게 형성되는 ‘포스트 웨스트팔리아(post-Westphalia)’ 국제질서에 부합하는 ‘신 지정학적 외교정책(neogeopolitical foreign policy)’과 더불어 ‘협력형 공공외교(collaborative public diplomacy)’가 요청됨.

○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한 신 지정학적 접근의 분석틀로서 인문지리학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Scale, Place, Territory, Network 에 주안 하여 아래 [표]와 같은 정책적 분석틀(SPTN framework)을 상징할 수 있음.

- 위계적 차원으로서의 지리적 Scale: ‘로컬-국가-지역-글로벌’과 같은 위계적 차원
- 북방정책의대상으로서의 Place: 사람들이 생활하는 세팅으로서의 place 는 다시 특정 위치(location)가 수행하는 사회경제적 기능, 특정 위치의 기능을 관장하는 정치사회적 제도(locale), 그리고 특정 위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소속감(sense of place)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¹
- 북방정책 대상으로서의 Territory: 국제사회에서 특정 국가가 절대적 주권을 행사하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영토
- 북방정책 대상으로서의 Network: 국가의 절대적 통치 권한 하에 있는 영토를 초월하는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의 집합체

[표] 신 지정학 분석틀

Scale	Place	Territory	Network
Local	• Distinct places • Cities, sites, regions, localities	• Local governments	• Local networks
National	• Core-periphery • Borderlands	• Distinct states	• Inter-state networks
Supranational	• Cross-border region • North Pole • Northern Sea Route	• Cold War system • Regional or global inter-state institutions, alliances	• Global city networks • Transnational diaspora networks • Global NGO networ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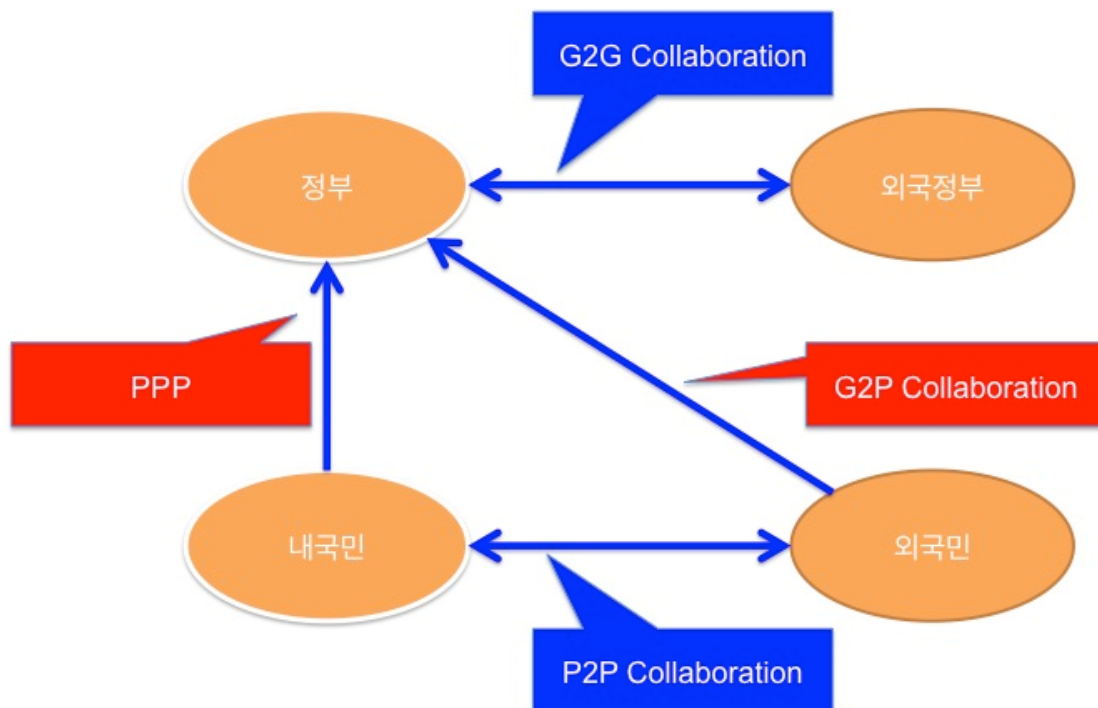
¹ 이는 Johan Agnew의 개념에 입각한 것임. John Agnew, *Place and Politics* (London: Allen & Unwin, 1987).

- 따라서 신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북방정책은 영토와 자원에 대한 국가간 경쟁을 넘어서, '대상 지리적 공간과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 또는 접근'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적 외교 뿐만 아니라 공공외교의 핵심 영역임.

○ **협력적 공공외교(collaborative public diplomacy) 네트워크 구축**

- 북방지역 국가들의 국민들과 사회문화적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일회성·일방향성 공공외교보다는 각 국가들의 공공외교 주체 기관들과 보다 제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협력적 공공외교는 (1) 양국 공공외교 주체 및 대상 간 관계형성(relation building), (2) 네트워크 구축(networking weaving), (3) 공동 프로그램(joint programs)의 시행, 그리고 궁극적으로 (4) 국제적 공공재(public goods)의 창출이라는 요소들을 그 핵심으로 하며, 아직 초보 단계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중국 양국 외교부의 주관 하에 2013 년 출범한 '한·중공공외교포럼'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그림] 협력적 공공외교의 형태



2.3.1. 토론자 참고자료:

21세기 공공외교의 한 형태로서의 '포럼외교'

-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아래의 링크 파일 인쇄필요:

[session 2W9_2_3_2_참고자료_김태환_21세기_공공외교의_한_형태로서의_‘포럼외교’.pdf](#)

2.3.2. 토론자 참고자료: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아래의 링크 파일 인쇄필요:

[session 2W9 2_3_3_참고자료_김태환_21세기_신공공외교와_포럼외교.pdf](#)

2.4. [panel]

**중앙아시아에서 공공외교와
중앙아시아 미디어콘텐츠 연구의 필요성**

- 남인용, 부경대학교 교수

중앙아시아에서 공공외교와 중앙아시아 미디어 콘텐츠 연구의 필요성

남인용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공공외교와 미디어 콘텐츠

- 공공외교에서 주목받는 핵심 영역: 미디어 콘텐츠 분야
- 우리 미디어 콘텐츠를 중앙아시아 지역의 공공외교에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중앙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콘텐츠를 학문적, 실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중앙아시아에서 한국학 교육은 매우 활발하다.
-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의 주요 대학에서는 한국어 학과가 설치되어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습득한 수천명의 현지인들이 한국으로 입국, 취업이나 학업에 참여하는 등 한국어언어의 보급을 통해 한국-중앙아시아 국가간의 경제, 문화 등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아시아 투데이, 2014 년 6 월 25 일).
- 인하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인하대(IUT·Inha University in Tashkent)'를 개교.

2. 한국에서 중앙아시아 관련 교육 및 연구의 현황

- 한국에서 중앙아시아 관련 교육 및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 강남대학교 국제학대학 국제지역학부 중앙아시아학전공
교수: 김필영, 김종민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손영훈, 이지은, Aliya Kuryshzhanova, Aziza Mashrabbekova
- 부산외대 유럽미주대학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터키·중앙아시아어과
교수: 김효정, 우덕찬, 비비굴, 우카다스
- 중앙아시아학회: 2007 년 창립,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중앙아시아연구'
- 계명대 2014 년 실크로드중앙아시아연구원 개원

3. 연구사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미디어 콘텐츠 분야의 연구는 드문 편이다. 한국과 관련되는 고려인신문에 대한 연구나 영화에 대한 연구, CSR 에 대한 연구 등이 일부 있었다.
- 엄구호(2012). 한국의 중앙아시아 연구, '아시아 리뷰', 제 2 권 제 1 호.

- Ban Byung Yool(2004). Korean Networks in the CIS : Current Problems and Future Tasks for Korean Newspapers 독립국가연합 한인네트워크: 고려인신문의 현안문제와 향후 과제, '슬라브학보', 제 19 권 2 호.
- 홍상우, 현대 중앙아시아 영화 연구: 제 9 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들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20 권 2 호.
- 홍상우, 2013, 카자흐스탄 영화의 저력 : 영화 『하모니 레슨스(Уроки гармонии)』 세계문학비교연구 vol.42.
- 박영은, 2012, 카자흐스탄 영화 <스탈린에게 바치는 선물>에 내재된 집단 기억과 민족 정체성, 외국문학연구 제 42 호.
- 박영은, 2012, 카자흐스탄 최초의 무성영화 <켈린>에 재현된 고대 튀르크 전통과 텡그리(Tengri) 신앙, 영화연구 53 호.
- 이경완(2011).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 광구 개발 기업들의 CSR 고찰 : 기후 및 환경 문제에 대한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 21 권 제 2 호.

4. 공공외교의 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아시아 미디어 교육 및 연구의 방향

- 중앙아시아 관련 교육 및 연구 기구 확대
- 중앙아시아 문화권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검토
- 신문, 방송, 영화, 광고 등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세부 연구 및 교육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등 국가별 미디어 콘텐츠 관련 연구 및 교육
- 석사, 박사 논문 이외의 학술지 게재 연구가 많아져야

2.5. [panel]

“한류, 소프트 파워, 공공외교”

- 박길성, 세계한류학회 회장

[한·중앙아시아 공공외교포럼 라운드테이블 토론]

2014. 12. 23

박길성(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세계한류학회 회장)

“한류, 소프트 파워, 공공외교”

1.

향후 외교는 공감과 동반을 향한 소프트 파워에 근간을 둔 공공외교의 시대.

공공외교의 핵심은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의 공유.

엘리트기반의 외교와 대중기반의 외교의 조화 요청

2.

한국에 대한 세계사회의 긍정적이고 공감적인 관심의 한가운데 한류가 자리 잡고 있음.

한류가 공공외교의 핵심으로 여겨짐.

한류에는 세계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공동체의 메시지, 역동의 메시지, 사회자본의 메시지,

융합의 메시지, 대안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3.

중앙아시아의 한류: ‘Low Steady’

확산 가능성이 매우 큼.

우즈베키스탄: 한류 도입단계, K-Pop 한류 열풍 견인, 드라마 인기,

한국어교육 학습 인원 CIS 국가중 최다(12,000 명)

카자흐스탄: 2010 년 한국문화원 개설, 드라마로 시작 K-Pop 으로 확산,

한류 동호회 활동

4.

공감과 동반을 향한 이시대의 지구적 과제가 한류를 통해 구현될 수 있는 지혜.

지역 현실(문화적 조건과 취향, 세대별, 성별)에 맞는 문화 행사 필요.

쌍방향적 문화교류 지향

전통적 가치 중요시하고, 종교적 영향으로 인한 보수적 경향에 대한 인식 필요
지역 정보 체계적인 수집 필요 (지구촌 한류 현황)

2.6. [panel]

한국의 대(對) 중앙아시아 공공외교 증진방안 모색

- 우준모, 선문대학교 교수

한국의 대(對) 중앙아시아 공공외교 증진방안 모색

우준모(선문대학교)

1. 공공외교는 흔히 외교 대상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지칭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외교쟁점인 정치, 군사, 안보를 내려놓고 사회, 문화, 예술 등 소위 말하는 연성권력(Soft Power)을 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2. 한국은 1992 년 소연방 해체 이후 등장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외교적 목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3. 중앙아 국가들은 한국의 압축적 경제성장을 롤모델로 삼고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와 대중가요(K-pop) 등에서 재미와 기쁨 그리고 즐거움을 찾고 있다.
 - 한국은 중앙아 국가들에게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군사적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아 국가들은 한국과 경제발전을 위한 관계 강화에 적극적일 수 있으며 한류의 대거 유입 역시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지 않고 즐길 수 있다.
4. 더불어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우수성과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에 대한 기대감에 매료되어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갖고 있으며 자국 내의 한국기업 취업이나 나아가 한국으로의 유학 혹은 취업을 희망하는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5. 그렇다면 한국은 중앙아 국가들과 공공외교의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부정부패에 대한 단절 노력과 인권존중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 한국은 압축적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독재와 정경유착, 권연유착, 관료부패, 연고주의(nepotism) 등 모든 폐해를 모두 경험했고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그런데 중앙아 국가들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저발전국가들에 대한 한국의 진출과정을 들어보면 부정부패를 활용하거나 심지어 우리가 앞장 서서 조장하는 경우까지 확인할 수 있다.
- 이제 한국과 중앙아 국가들 간의 수교도 20 년이 훌쩍 넘어섰고 중앙아 국가들도 체제전환 20 여 년이 지나면서 상당한 수준에서 지적 계몽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 특히 글로벌 차원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보편적 신념이 확산되고 있다.
- 한국의 대 중앙아 공공외교는 이제 지구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고 부패척결에 앞장서는 양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특히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최고 지도자가 그 국가의 기대수명에 비해 초고령임을 감안할 때 레짐변동(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
- 한국 정부 및 현지 외교공관 등은 현지에 진출한 기업 혹은 개인이 부정부패를 동원하는 비즈니스 행태나 노동자 처우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할 시점이다.

둘째, 첫째 사항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현지 국가의 법체계에 대한 준수와 사회문화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 봉사활동이든 선교활동이든 자신들이 옳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강한 경우 초법적 또는 탈법적 행태를 절대적 선의 기준으로 재해석하려 들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한국 정부차원의 계몽과 통제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절실하다.

셋째, 고려인을 포함한 한국어 능력 우수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이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을 더 많이 확충해서 한류 확산의 매개체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 특히 한국어 능력 우수자는 한국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더 많이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한국 유학의 기회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예컨대 현지에서 직업교육 과정을 개설하면서 한국어를 공식 교육언어로 삼는 것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이다.

2.7. [panel]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디어 공공외교

- 이봉현, 한겨레 신문 편집국 부국장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디어 공공외교

이봉현 (한겨레신문 편집국 부국장)

- 미디어 활용은 한국형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
- 미디어 활용 공공외교는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요소를 통해 상대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



<그림> 한국형 미디어 공공외교 모델 (김성해·김동률, 2013)

(김동률 등, 2013, 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 활성화 방안 연구)

- 물리적 강압이 아닌 회유와 설득을 통해 타인의 선호도(preference)를 바꿀 수 있을 때 권력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 하지만 한국은 글로벌 공론장에서 위상이 약하고 미디어가 가진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

□ 칭송모델(Applauds Model)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칭송이라는 개념을 통해 국제사회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론. 글로벌 공론장에서 BBC 와 알자지라 등이 거둔 성과를 창조적으로 모방하기 위한 모델.

□ 의제형성, 지식, 경청, 감시, 기여 등 칭송모델의 구성요소에 초점을 맞춰 현재 우리가 가진 역량을 평가하고 전략을 세워서 중앙아시아에서 성공적인 공공외교를 수행하는데 미디어가 역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